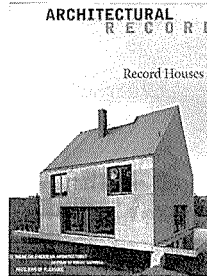


- Architectural Record
- The Architectural Review
- Domus
- World Architecture
- 建築文化
- a+u
- 新建築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4월호

주택특집으로 이루어진 이번 호는 실험적인 성향이 짙고 조립식으로 지어질 수 있는 소규모 주거기능의 파빌리온



을 소개하였으며, 주위맥락의 반영, 재료의 사용, 건축구성면에서 독특함을 지닌 주택을 다각도에서 조명하였다. 또한 MoMA에서 열리게 될 전시회 "Un-Private House"에 대한 기사에서는 전시되는 작품과 그것에서 보여지는 공간적 성질, Mies로부터 이어지는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졌다.

■ 다섯개의 파빌리온

여기에 소개된 파빌리온들은 거주기능을 지닌 소규모 건물로서, 조립식 건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명상을 위한 휴식처, 이론을 펼치기 위한 실험적인 프로젝트, 보트하우스, 레일 위로 이동 가능한 주택, 강 위로 캔틸레버에 의해 매달려 있는 유리박스형의 주택, 손님용의 작은 오두막집 등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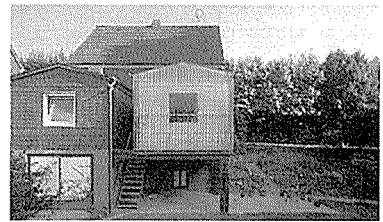
▶ Hans Peter Wörrndl의 Guckhüpf 파빌리온은 힌지로된 플라이우드 패널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램프, 여닫이 문, 들어올리는 문, 발코니 또는 창문 등으로 변형된다.

삼층 높이의 내부공간은 지붕데크와 작은 방 아래에 조성되었다.

힌지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조류 관상대, 보트 창고, 연주회, 파티, 독서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 Kalhöfer-Korschildgen의 독일 Remscheid-Lüttringhausen 실험주택의 건축주는 2층에 거주하는 60대 노인이

나갈 경우 작업실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스틸 프레임에 레일을 부착하여 성인 두명의 힘으로 쉽게 위치이동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여름에는 부속건물이 스틸로 된 맥크위로 분리가 가능하게 하였고, 겨울에는 다시 붙여놓아 외투를 입지 않고도 부속건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플라이우드로 된 내부마감과 단열재는 제거가 가능하여, 온실로 변형될 수 있도록 하였다.



Kalhöfer-Korschildgen의 독일 Remscheid-Lüttringhau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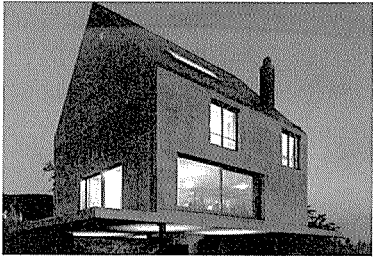
■ 건물유형 연구 - 주택

건축에 앞서서, 장소에 대한 강렬한 감각이 각 작품에 있어서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주위환경의 형태와 텍스처를 환기시키는 은유는 Will Bruder의 아리조나 Byrne 주택, Brit Anderson의 호주동부 Rosebery 주택 등에서 나타난다. Ando Tadao의 미술관 같은 Chicago House는 형태적으로는 도시의 지붕들과 대화를 나누는 한편, 내부지향적인 격리된 영역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주위 맥락에 대한 고려 대신에, 다른 곳에 집중한 건물들로서, 평범한 재료를 정밀한 목공기술과 결합한 Shim Sutcliffe Architects의 토론토, Craven Road 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 Herzog & de Meuron의 프랑스 Laymen 소재 주택

이 건물은 고전적인 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역설적이게도 비전통적인 재료인 콘크리트 단일체로 이루어졌다.



Herzog & de Meuron의 프랑스 Laymen 소재 주택

약간 경사진 대지로 인해, 필로티에 의해 떠있는 플랫폼 위에 집이 얹혀있는데, 이것은 마치 금방 들어올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할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낸다. 동시에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처리는 건축 아래로 땅이 자유로이 흘러감을 보여주며, 콘크리트 재료의 육중함과 들어올려져 있는 상태가 보여주는 가벼움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 MoMA의 "Un-Private House"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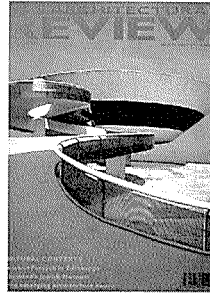
Terence Riley가 전시기획을 하고, 올해 6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리게 될 이 전시회에서는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과 최근의 건축적 변혁을 반영하는 세계 각국의 건축가의 주택작품 26개가 전시된다.

각 작품은 공통적으로 투명성, 유동성, 공간적 펼쳐짐 등의 공간적 특징을 보이면서 경계의 부재를 암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Un-Private House"라는 전시회 제목이 붙여지게 되었다. 또한 전시된 작품은 재료사용의 감각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Mies의 영향이 발견되고 있는데, 현 건축가들은 유리의 사용이 단순히 거주자가 밖을 바라보게 할 뿐 아니라, 도시적 상황에서 낯선 사람이 안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서 Mies의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The Architectural Review

1999년 4월호

이번 호는 Daniel Libeskind의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과 현상적이고 구축적이며 물질적인 Benson



Forsyth Edinburgh의 스코틀랜드 박물관을 비교하는 기사가 실렸다. 이와함께, 리오시 해안 경관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으며 해안절경의 전망과 전시기능을 위한 외부로의 조망차단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Oscar Niemeyer의 Rio de Janeiro 미술관을 소개하였다. 또한 Rafael Moneo의 스페인 Don Benito 문화센터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자세히 다루었다.

■ 두 개의 박물관 - 유대인 박물관과 스코틀랜드 박물관



박물관이라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도시와의 관계나 소장 작품에 대하여 상이한 접근을 보여주는 두 사례로 이상적이고 추상적이며 은유적인 Daniel Libeskind의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과 현상적이고 구축적이며 물질적인 Benson + Forsyth의 Edinburgh 스코틀랜드 박물관이 소개되었다. 도시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앞의 작품은 매우 개념적으로 출발하고 있다. Libeskind는 베를린시 지도에 나타나는

유대인 문화운동의 중요지점들을 연결한 선에 의미를 두고, 그것들을 건물의 입면과 평면의 개구부로 구체화하였다. Edinburgh에 있는 미술관에서는 각각의 개구부들이 구체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 성루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전통적 중요성을 상징)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장면을 프레임에 담고 있다. 전시동선에 있어서는 Libeskind의 건물은 아래층에서만 경로의 선택이 가능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아래층에서 세 개의 경로-Holocaust Tower, Hoffman 정원, 갤러리로 이어지는 계단-가 나타난다. 그러나 갤러리 층에서는 주경로 이외의 경로가 스코틀랜드 박물관보다 훨씬 적게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방문객은 길고 좁은 판을 진행하게 되며, 보이드를 지나는 곳은 매우 드라마틱하지만 위층에서는 접근이 안되도록 되어있다.

■ 작품소개

▶ Oscar Niemeyer의 Rio de Janeiro 미술관

리오데 자네이로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 절벽위에 위치하고 있는 접시모양의 이 미술관은 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 건물은 지름 9m의 줄기역할을 하는 원통형에 반지름 18~20m의 접시형태가 캔틸레버로 매달려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구불구불 휘어진 램프는 부두에서 건물을 둘러싸는 플라자를 연결한다. 접시형태의 본체는 3개 층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아래부분은 사무실로 쓰이고 위의 두 개 층이 갤러리로 사용된다.

가장 위층은 기획전시와 설치작품을 위한 부분이며, 중간층에 소장품을 상설전시하고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Niemeyer는 원형공간 코어부분에 육각형 평면의 파티션을 두어 유동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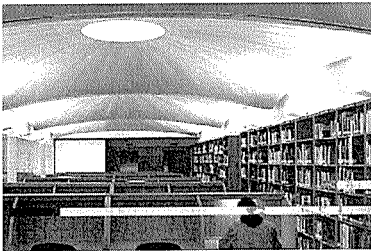
이 파티션은 경우에 따라서 예술을 압도

하는 리오시의 파노라마를 가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 밖에 ▶ Lawrence Nield의 호주 Sunshine Coast 대학 도서관 ▶ Juan Navarro Baldeweg의 Princeton 음악도서관 등이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인테리어 디자인

▶ Rafael Moneo의 스페인 Don Benito 문화센터



내부 디자인은 Moneo의 빛과 재료 처리의 독특함으로 특징지어진다.

건물은 극장과 그 상층부에 도서관을 두고 일련의 부속실에 의해 두 면이 둘러싸이는데, 빛을 건물 안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해결되어야 할 점이자 디자인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부분이었다.

지붕위로 솟아있는 10개의 천창이 갤러리 부분에 빛을 제공하며, 도서관과 기록보관소 부분에는 거대한 백색 튜브를 통해 나머지 빛이 전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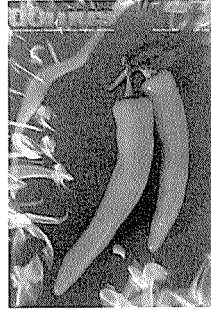
백색 튜브를 통한 빛은 플라이우드로 된 휘어진 천장 판에 다다르면 빛이 확산되어 책을 읽기에 적당한 조명환경을 연출한다.

그 밖에 ▶ Studio Gron의 스웨덴 Gothenburg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소개되었다.

Domus

1999년 3월호

이번호는 각 국가들이 뚜렷한 정체성과 독자성을 지니지만, 오늘날 다시 연합하고 있는 지중해지역을 중심으로 건축, 산업디자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지중해 지역 건축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다시 읽는 것과 현실속에서 현재를 읽어내는 이중적인 독해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Nadim Karam의 베이루트, 환경조각물과 이태리의 디자인업체, Olivetti사의 디자인과 디자인철학을 소개하였다.



이번호는 각 국가들이 뚜렷한 정체성과 독자성을 지니지만, 오늘날 다시 연합하고 있는 지중해지역을 중심으로 건축, 산업디자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지중해 지역 건축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다시 읽는 것과 현실속에서 현재를 읽어내는 이중적인 독해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Nadim Karam의 베이루트, 환경조각물과 이태리의 디자인업체, Olivetti사의 디자인과 디자인철학을 소개하였다.

■ 지중해 건축 특집

▶ Alvaro Siza의 포르투갈 Oporto 건축 스튜디오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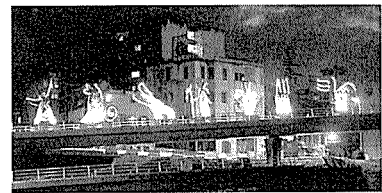
세계화와 지역적 특수성 사이의 갈등은 Siza의 작품과 작업방식에 오랜동안 나타나는 주제이다.

그는 Oporto 주변의 변화하고 있는 교통, 통신 하부구조 내에 그의 스튜디오를 위한 사이트를 설정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주요한 도시적 위치에서 새로운 건물은 도시성을 드러내려고 하며, Oporto지역 랜드스케이프의 도시적, 산업적 패턴의 결합을 조장한다. 이 건물의 특징은 비결정형의 적절한 사용, 그리고 과도기의 랜드스케이프와 솔직하게 대응하는 어색한 비례에 있다.

그 외에 ▶ Ada Karmi-Melamede의 예루살렘 대법원 ▶ Zvi Hecker의 텔아비브 역사박물관 ▶ Stefano Boeri의 Naples 항, 보행자 지구 기본계획, ▶ Alvaro Siza와 Roberto Collova의 시실리, 성모교회 재건과 Alicia광장 복원이 다루어져 있다.

■ Nadim Karam의 베이루트, 환경 조각물



Nadim Karam은 세네갈 출신으로 레바논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일본에서 활동하였는데, 그 기간중 마키 후미히코와 다카마츠 신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에서 그의 개념이 성숙해진 후 레바논으로 돌아와 다시 작업을 하고있는데, 그의 아이디어는 명확하며, Urban Art의 언어체계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 그가 벌이는 건축적인 퍼포먼스는 현존의 은유를 가능케 하도록, Sign-object를 사이트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는 재능있는 이야기꾼으로서, 중동의 전설로부터 영감을 얻어 '고전의 행렬 (archaic procession)'을 이끌어간다. 그것은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개념이 무시된 은유이다.

금속 실루엣의 동물과 사람 형상의 행렬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도시 사이트에 세워지는데, 1995년 베이루트 국립미술관에 설치된 이 작품은 내전기간 동안 동서 베이루트의 경계가 되었다.

■ Olivetti사 - 이태리 유토피아의 산실

타자기 생산을 시작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90년의 세월을 겪으며 예술과 사회라는 지적 세계와 긴밀히 결부된 정치적, 문화적 유기체의 전형으로 자리잡았으며, 사고의 표현만이 회사의 원동력이 될을 모토로 삼고 있다.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생산된 컴퓨터 및 사무기기의 디자인과 그것에 담긴 디자

인 철학을 소개하고 있다

■ 기타

▶ 인류학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시각적인 창조성을 강조하는 디자이너 Alessandro Mendini와의 인터뷰와 작품소개 ▶ 터키와 그리스의 산업디자인 ▶ Claudio Lazzarini의 오토 디자인 ▶ 도무스 창간 70주년 기념 이벤트로 열린 Robert Wilson의 퍼포먼스 "파사드 위의 70 천사" 지상중계 등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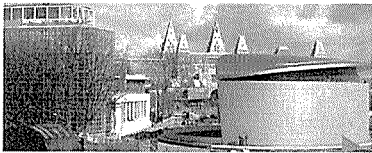
World Architecture

1999년 5월호

이번호는 기존 건물에 완전히 대비되는 타원형태로 독립되어서 있는 Kisho Kurokawa의 암스테르담 반고흐 미술관 증축이 소개되었으며, 건물유형 연구로서 카지노 건축 현황과 사례들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 Kisho Kurokawa의 암스테르담, 반고흐 미술관



Gerrit Rietveld가 설계했던 이 미술관은 쿠로카와에 의해 새로운 건물이 부가되어 6월에 재개관하게 된다. 덴마크 조경건축가인 Sven-Ingvar Andersson이 마스터플랜을 담당하였는데, 건물이 부가되면서 지하에 주차장

을 두었으며, 전체 건물의 시선축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원형이던 건물이 타원형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건물과는 선긋된 지하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유로이 독립되어있는 볼륨을 가진다.

기존건물의 에스컬레이터가 지하로 연결되는데, 여기에 올라서면 타원형의 볼륨이 눈에 들어온다. 또한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선은 점차 보이드로 향하며 다시 연못으로 옮겨간다.

밀폐되고 강한 인상은 타원형의 형태 뿐 아니라 마감재의 선택에 기인하는데, 내부에 들어서면 보다 완화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회색빛 알루미늄 마감의 Picture Cabinet은 기존건물방향으로 캔틸레버에 의해 매달려 있는데, 비밀스런 내부공간을 지닌 이 박스는 전시 동선의 마지막 지점이 되어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다.

■ 건물유형 분석 - 카지노



아틀랜틱 시티의 Caesar 카지노

미국 호텔 카지노의 새로운 세대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레저와 오락산업 디자인 경력을 가진 건축가들이 이를 통해 수입을 얻고 있다. 미국의 과도한 디자인 사례와 유럽의 규제되고 양식적으로 절제된 카지노, 그리고 비디오와 음향설비를 갖춘 미래형의 디지털화된 일본 카지노 등이 소개되었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는 테마에 의해 디자인되는데, 카지노에 오는 사람들이 단순히 도박만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시설들, 즉 음식점, 쇼핑물, 오락 시설 등에 이끌리게 된다.

▶ 로마를 테마로 정한 아틀랜틱 시티의 카지노 Caesar는 단순히 카드보드를 잘

라 만든 로마광장의 모사가 아니라 거대한 콜로네이드를 부가한 삼차원적인 셋팅을 자랑하며, 보다 사실적인 무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어 디자인 되었다.

▶ 런던의 Ladbrokes Sporting 카지노는 모던하고 단순한 디자인에 풍부한 색채의 사용으로 관광객에게 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주도록 디자인되었다. 방음벽을 부어 런던시의 소음을 차단하였으며, 창이 없는 몇 개의 방들은 도박인을 위한 타임캡슐과 같이 시간개념에 관계없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일본 긴자 거리에 있는 Brisbin Brook Beynon Architects가 설계한 카지노는 각 좌석마다 작은 화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위층의 극장에서 상연되는 각종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좌석의 사람들은 원하는 카메라의 앵글과 화면 확대, 축소 등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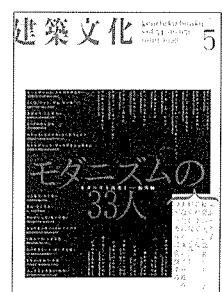
■ 기타

▶ 최근에 건축붐이 일고있는 Cuba의 건축환경, ▶ 텍사스 건축을 소개하였다.

建築文化

1999년 5월

이번 호는 「모더니즘 33인」이라는 특집을 다루고 있다. 이번 호에 소개되는 근대 건축가 33인을 시작으로



근대건축에 영향을 끼친 여러 분야의 인물들을 통해 근대건축을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해 보는 특집을 마련하고 있다. 33인에 대한 소개는 18명의 논자(論者)가 평을 실고 있다.

■ 특집 / 모더니즘의 33인: 모더니스트 제1편-해외편

▶ 인물들을 통해본 모더니즘

인류가 여태껏 겪어 보지 못했던 격동의 20세기를 뒤돌아보며 다시 읽는 작업이 다양한 매체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건축도 그 예외가 아니어서 20세기 최대의 운동이었던 모더니즘을 되돌아보는 특집이 마련되었다.

이 특집에서는 모더니즘을 인물 중심으로 다시 해석하고자 하고 있다.

당연 가장 먼저 소개되어야 할 사람들은 건축가가 되겠는데, 교과서 등에서 흔히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거장들 뿐만 아니라, 거장들에 비해 그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모더니즘의 전개에 나름대로 비중있는 족적을 남긴 인물들을 망라하였다는 점이 이번 특집의 기획의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는 거장 중심으로 해석되어져 왔던 모더니즘의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건축가들 뿐만 아니라 보통의 통사에서 무시되거나 간략히 소개되어져 왔던, 모더니즘과 병행하여 나타나 서로 '共振'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들이나, 건축에 영향을 끼친 타 분야의 사람들-도시 계획이나 평론을 맡았던 사람이나 미술, 사상 등의 분야에 속한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모더니즘을 보는 편파적인 시각을 벗어난 해석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특집은 모더니즘 시대의 인물들을 현재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데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각 논자들은 그들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모습들을 글로써 나타냈기 때문이다. 과거를 돌아보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견지해 볼 수 있는 기획으로 기대된다.

▶ 모더니즘의 33인

이번 호에서 소개된 근대 건축가 33인은 오토 바그너, 루돌프 슈타이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찰스 레니 매킨토쉬, 피터 베렌스, 아돌프 로스, 피에 몬드리안, 오귀스트 빼레, 아일린 그레이, 테오 반 두즈부르그, 군나 아스프룬트, 루드비히

힐버자이머, 미스 반 데로에, 루돌프 쉰들러, 르 꼬르뷔제, 게릿 리트펠트, 루드비히 뷔트겐슈타인, 하네스 마이어, 엘리시츠키, 프레들릭 키슬러, 콘그탄틴 메르니코프, 리처드 노이트라, 지그프리드 기디온, 라스코 모홀리-나기, 백민스트 폴러, 알바 알토, 마아트 스태, 카렐 타이거, 장 푸르베, 아달베르토 리베라, 쥬세페 페라니, 오스카 니마이어, 조셉 리쉬트이다.

▶ 33인에 속한 건축가들의 대표작 13選

이번 특집에 소개된 건축가들의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서 13개의 작품을 선별하여 컬러 화보로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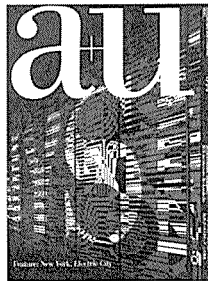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보아, 알바 알토의 마이레아 저택 등 거장의 잘 알려진 작품들과 피터 베렌스의 AEG 터빈 공장, 루돌프 쉰들러의 로베르 비치 하우스, 아달베르트 리베라의 EUR회의장 등 컬러로 접하기 힘든 작품들의 화보가 소개되었다.

a + u

1999년 5월

이번 호에서는 「뉴욕, 일렉트릭 시티 (New York, Electric City)」라는 제목의 특집을 마련하였다.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가 넘쳐나는 도시, 뉴욕. 이 도시를 활기차게 하는 원동력이 전기에 의한 것이라는 착안 하에 전자매체를 통해 작업하고, 이 매체를 건축에 반영한 뉴욕에 세워진 작품들을 특집으로 엮었다. Joan Ockman의 서설과 함께 6명의 작가와 그룹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 특집 - 뉴욕, 일렉트릭 시티(New York, Electric City)

▶ 전기에 의해 활력을 얻는 도시 뉴욕
뉴욕의 공기에는 전기가 넘쳐난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활기를 띠고, 고압 전류에 의해 뉴욕커들은 움직여지고 있는 듯 하다.

인기있는 실험장으로서, 뉴욕은 몇 개의 조류를 탄생시켰다. Folding이나 페이퍼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건축을 여기저기에 내 놓으면서 말이다.

'Ceci tuera cela',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이제까지의 것은 필요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종이는 이제 불필요한 것이 되었고, 영상에 의해서, 순수히 전기에 의해 생성되는 프로세스에 건축은 존재하고 있다.

카드보드의 퇴거, 그리고 육체와 단어 사이의 분열. 전자혁명이 어떠한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인쇄물, 논설, 추측들의 홍수.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스튜디오에 들어박혀서 그들의 스크린을 감시하고 있는 뉴욕의 건축가들은 육체와 단어를 맺어주는 것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작가들의 활동

이들의 작품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개별 건물, 도시계획, 퍼포먼스와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내용과 수법 또한 전자매체에 의해 움직여지는 증권시장의 설계에서부터 전자매체를 통한 퍼포먼스, 전자 정보시대의 분위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 전자매체를 통한 프리젠테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일렉트릭 시티 뉴욕에 대한 각자의 해석과 건축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 소개된 작가들과 작품

소개된 작가와 작품으로는 카와쿠보 레이 /가와사키 타카오의 Future System, Studio Morsa의 Comme des Garçons in Chelsea, Asymptote: Rashid+Couture의 New York Stock Exchange Trading Floor Operations 와 Center/3DTFV, Graz의 Music Theater, Diller + Scofidio의 Jet Leg(약 90분간의 퍼포먼스, 2막, 막간

없음), Jump Cuts(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시네 플렉스의 선전 비디오), Travelogues(JFK공항 국제선도착로비 Sterile Corridor의 퍼블릭 아트), Archi-Tectonics의 Wooster St. Loft, Millbrook의 주택, Maashaven의 타워들, Gear Magazine의 사무실, RUR Architecture: Reiser+우메모토의 East River Waterfront, Graz의 Music Theater, Beyer Blinder Belle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개수계획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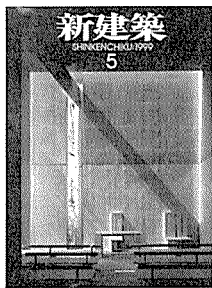
■ 리포트와 연재물

이번 호에는 상디갈 50주년기념 리포트 2편이 소개되었다. 그 첫 번째는 윌리엄 커티스의 글 「르 꼬르뷔제의 상디갈-우주적·정치적 경관으로서의 수도」이며, 두 번째는 작디쉬 사가의 「상디갈: 찬성인가 반대인가」이다. 연재물로는 「건축과 컴퓨터 사이언스」와 「시대의 시점 제4회-溫故知新」이 게재되었다.

新建築

1999년 5월

이번 호의 최신작 소개에서는 마키 후미히코의 '힐사이드 웨스트', 안도 타다오의 '빛의 교회 일요학교', 하라 히로시와 아틀리에 파이의 '타카키 의원', 이소자키 아라타의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키쿠다케 키요노리의 '昭和館', 니켈 설계의 4개 그룹이 공동 작업한 '하카다 Riverain' 등의 작품들이 소개되었으며, 연재물로는 「소재로 보는 90년대의 공간과 표현 제 2화-영상화하는 유리소재」가 게재되었다.



■ 작품

▶ 힐사이드 웨스트 (설계: 마키 후미히코)
'힐사이드 웨스트'는 카페, 레스토랑, 갤러리, 점포, 사무소, 공동주택 등을 한데 구성한 도시형 복합건물이다.

대지는 5.5m의 레벨차이가 나는 나란한 두 도로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 주택가를 면한 도로쪽의 필지와 상업시설을 면한 도로쪽의 필지가 서로 모서리에서 연결된 형태이다.

따라서 건물은 3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상업시설이 들어선 쪽에 레스토랑 카페 사무소 등이 들어선 A동, 주택가가 면한 쪽에는 공동주택인 C동, 그리고 그 사이에 정육점 갤러리 사무소 등으로 이루어진 B동이 각각 위치하였다.

이 3개의 동은 5.5m의 레벨차이에 의해 조금씩 다른 높이의 대지에 위치하면서 연결되고 있으며 건물 사이에 레벨차이를 완충시키며 나란한 두 도로를 연결하는 외부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주택가를 면한 C동의 경우는 건물의 높이를 낮추어 주변 건물과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 빛의 교회 일요학교 (설계: 타다오 안도)
빛의 교회 일요학교는 기존에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빛의 교회에 일요학교(주일학교)를 증축한 것이다.

규모와 외관은 기존의 교회건물과 거의 유사하다.

콘크리트의 상자에 깎여진 벽이 첨가된 형태의 주제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나 내부에 들어서면 사뭇 다른 인상을 받게 된다.

빛에 의한 연출은 유사하나, 예배당과 달리 주일학교라는 것은 주택과 같이 생활의 공간과 유사한 것이라는 개념이 묻어나고 있다.

▶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설계: 이소자키 아라타)

산지의 계곡에 위치한 이 예술촌은 숙박 시설과 식당을 갖춘 식당동, 공연시설을 갖춘 본관으로 구성된다.

본관은 실내 연주 홀과 야외 홀을 각각 1

개씩 갖추고 있으며, 숙박동은 계곡의 경사를 따라 단이 진 연못 위에 2층 높이의 숙박용 유니트들이 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본관의 야외무대의 후면에도 건물에 의해 둘러싸인 연못이 있어 이곳이 본래 계곡이었다는 흔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숙박동과 본관의 이미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물이 되고 있다.

▶ 하카다 Riverain (니켈 설계의 4개 그룹이 공동작업)

하카다 Riverain은 3개의 사이트로 구성되는 재개발 지역 계획의 총칭이다.

이 재개발 지구는 과거 상권의 중심이었으나 쇠락하여 30년 전에 재개발을 추진한 곳이다.

재개발 지구는 하천과 면한 워터 프론트인 '리버 사이트', 이에 인접한 '호텔 사이트' 그리고 리버 사이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면한 웨스트 사이트 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역은 추진자와 설계자가 모두 다르나 이들의 재개발 코디네이터로 시 당국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제3섹터'라는 조직이 마련되어 상호 보완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다.

리버사이트에는 미술관과 상업시설, 호텔사이트에는 호텔이, 그리고 웨스트사이트에는 공연시설이 들어섰다.